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16 ARIUS DIDYMUS THE KINGMAKER II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Arius Didymus the Kingmaker II」 (원서 PDF 121~12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덕을 가르치는 철학자는 권력 곁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옥타비아누스 곁에는 스토아가 한 사람 더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리우스 디디무스다. 그는 황제의 마음속까지 아는 동반자로서 고향 알렉산드리아를 살려 두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어린 카이사리온을 없애라고 권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지혜 · 절제 · 정의 · 용기라는 네 가지 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스토아를 꿈꾸는 사람이 따라갈 지도를 남겼다. 덕을 드러낼 능력은 타고나도 사람을 지혜롭고 선하게 만드는 것은 갈고닦는 실천이라는 그의 말은 공부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5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성장에는 안내와 노력이 필요하다(125쪽 ¶6~¶7) / 덕은 갈고닦는 실천이다(125쪽 ¶3~¶4) / 절망은 떠난 이와 남은 이를 함께 저버린다(124쪽 ¶1~¶2) /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126쪽 ¶2)
4~5	**밑줄 함축 의미**	tent-companions / constant companion / walking literally hand in hand / as a favor to my friend here / Warlike Twin / too many Caesars / dirty business / into the stadium's dust / a calm sea and fair wind / a kind of road map / black and white / political expediency / using the throne for rest / the wheels of time kept turning
6	지칭 추론	he·him이 Augustus·Athenodorus·Arius·Themistius 사이를 오가는 123쪽 ¶3 / his가 겹치는 123쪽 첫 줄(his former ally-cum-rival · his son's murderer) / it(dirty business) · Nor could Rome(123쪽 ¶1) / them = 네 덕(124쪽 ¶4) / that = 정치적 편의라는 범주(125쪽 ¶2)
7~8	내용 일치·불일치	생몰 · 출신(121쪽: B. 70 BC · Alexandria · D. 10 AD) / 44 BC 무렵 · 아들들 · 수에토니우스 · 그리스어(122쪽 ¶2) / 30 BC 입성 · 서른세 살(122쪽 ¶4) / 영토 · 약 4,500만 · 이집트 총독 거절 · 파나이티오스와 스키피오(123쪽 ¶2) / 27 BC(125쪽 ¶9)
9~10	**어법**	It was ~ that 강조 · however + S + V · once (being) in it · not only A but B · 완료 수동 분사구 · 간접의문문 어순 · believe oneself to be · take to -ing · if wise he be · to부정사 수동 주어 · whereas + seem to have p.p. · until + 과거완료 · Nor 도치 · 장소 부사구 도치 · be offered · beg + O + to V · so ~ that + 삽입 · neither 도치 · Contained ~ are 도치 · A as well as B · whether A or B · 전치사가 남는 관계절 · It is ~ that · nowhere near · have + O + p.p. · least of all · All S could do was + 원형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incere↔insincere · reassure↔alarm · pardon↔condemn · pragmatic↔idealistic · lethal↔harmless · nominal↔substantial · decline↔accept · reliant↔independent · prosperity↔adversity · betrayal↔loyalty · cultivate↔neglect · regress↔progress · industrious↔lazy · implanted↔acquired
12	빈칸 추론	virtue as types of knowledge / a betrayal of the living / nothing better than those four virtues / an active practice of cultivating and refining / disposition of the soul in harmony with itself / love the process of getting better / implanted gifts + hard effort
13	문장 삽입	리비아에게 보낸 위로 편지(123쪽 ¶4): 가족과의 친분 → 비뚤어진 자부심 → 순탄한 때의 용기 → 잔잔한 바다와 키잡이 → 굳게 버티라 → 산 이들을 생각하라
14	무관한 문장	두 스승의 삶과 유산과 죽음(126쪽 ¶2 ~ 인용 뒤)에 필로스트라토스 일화(122쪽 ¶5)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카이사리온: 정치까지 가르친 아리우스 → 플루타르코스의 전언(너무 많은 카이사르) →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까지 기다림 → 제거 · 카이사리움 → 더러운 일(122쪽 ¶6 ~ 123쪽 ¶1)
16	요약문 완성	남은 저술과 네 가지 주덕 · 네 갈래 틀 · 스토아를 꿈꾸는 이의 지도(124쪽 ¶3~¶5) / 타고난 재능 + 고된 노력(126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출생 70 BC · 사망 AD 10 · 옥타비아누스의 삶에 들어온 44 BC 무렵 · 알렉산드리아 입성 30 BC(옥타비아누스 서른세 살) · 아우구스투스가 된 27 BC, 여기에 인구 약 4,500만. 출처도 여럿이다(수에토니우스 · 플루타르코스 · 테미스티오스). 인물도 많다(아테노도로스 · 필로스트라토스 · 클레오파트라 · 안토니우스 · 카이사리온 · 아그리파 · 리비아 · 드루수스 · 파나이티오스 · 스키피오 · 제논 · 네로 · 세네카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declined ↔ accepted the governorship, Suetonius ↔ Plutarch, after ↔ before Cleopatra's death, political ↔ only moral matters, no evidence ↔ evidence of corruption). 누가 무엇을 했는지 · 누가 그것을 전했는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Arius Didymus the Kingmaker II」 (122~126쪽)

전기·논증형(또 한 명의 스토아 → 동반자 → 알렉산드리아 입성 → 영향력과 어두운 조언 → 권력의 정점 → 위로 → 네 가지 덕 → 이분법에 대한 물음 → 실천과 근면 → 한계와 가르침 → 유산과 죽음). 핵심 축은 **도덕적 성품(아테노도로스) vs 정치(아리우스)**, 그리고 **타고난 재능 vs 갈고닦는 실천**.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2 ¶1	도입	옥타비아누스 곁의 또 한 명의 위대한 스토아 / 그에 관해 아는 것은 조금 적지만, 그의 믿음과 (저술을 통해) 스토아의 핵심 가르침은 훨씬 많이 안다
122 ¶2~¶3	동반자	44 BC 무렵 · 어린 아들들 = '막사 동료'(수에토니우스) · 그리스어를 읽고 즐기게 됨 / '늘 곁에 있는 동반자' ·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122 ¶4	입성	30 BC 서른세 살 옥타비아누스와 문자 그대로 손을 잡고 / 내전 · 클레오파트라 · 최악을 두려워한 주민 / 그리스어 연설 · 살려 둔 이유 셋 · "내 친구에 대한 호의"
122 ¶5	영향력	필로스트라토스의 간청 "현자는 현자를 구할 것" / 사면 — 주로 스승을 성가심에서 구하려고(플루타르코스)
122 ¶6	대비	'전쟁을 좋아하는 쌍둥이' · 마키아벨리적이나 실용적인 조언 / 아테노도로스 = 주로 교육 · 도덕적 성품, 아리우스 = 정치 문제까지 / 왕좌의 위협을 쓸어 냄
123 첫 줄	제거	"카이사르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플루타르코스) / 안토니우스의 장례 · 클레오파트라의 음독 뒤 카이사리온 제거 / 카이사리움 신전 → 아우구스투스에게
123 ¶1	명분	더러운 일이지만 필요하다고 믿음 / 카토 · 키케로 · 포르키아를 떠올리면 또 한 번의 내전은 용납할 수 없음 — 로마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3 ¶2	권력	역사상 가장 큰 스토아의 정치 권력 / 영토 · 인구 약 4,500만 · 이름뿐인 견제 · 자문단 두 스토아 / 이집트 총독 거절 · 파나이티오스와 스키피오
123 ¶3	신뢰	아테노도로스에게 한 해 더 · 두 스승에게 깊이 기댐 / 테미스티오스: 아그리파만큼 소중히 · 경기장의 흙먼지로 끌고 가지 않음
123 ¶4	위로	리비아 · 드루수스 / 비뚤어진 자부심 · 잔잔한 바다는 키잡이의 솜씨를 보여 주지 못함 · 굳게 버티라 / 산 자녀와 손주를 생각하라
124 ¶1~¶2	슬픔	삶이 공평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 / 절망 = 떠난 이의 기억에 대한 모욕 + 산 이에 대한 배신 / 섬세함 · 품위 · 연민
124 ¶3~¶4	네 덕	현실 정치의 예는 한두 가지, 가르침의 증거는 훨씬 많음 / 지혜 · 절제 · 정의 · 용기 · 마르쿠스의 찬사 / 그보다 나은 것은 없다
124 ¶5~¶6+인용	덕의 정의	네 갈래 틀 · 스토아를 꿈꾸는 이의 지도 / 덕 = 여러 종류의 앎 / 용기 아래의 필로포니아(근면)
125 ¶1~¶2	이분법	악덕 = 앎의 결여 ·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제논에게서 왔다는 주장) / 흑백 · 왕자를 죽인 사람은 어디에? · 정치적 편의
125 ¶3~¶5	실천	타고난 능력 + 능동적 실천 · 영혼의 조화 / 그 자신은 알 수 없음 · 옥타비아누스는 덕에 가까이 / 네로는 아님 · 벽돌 → 대리석
125 ¶6~¶8	근면	안내 + 나아지는 과정의 사랑 · 필로포니아의 본보기 / 노력을 쏟는 사람은 드묾 · 가치 없는 자는 근면하지 않다 / 타락의 증거 없음(세네카와 대비)
125 ¶9~126 ¶2	한계 · 가르침	27 BC 옛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음 · 제자를 최선의 사람으로 / 타고난 재능(aphormai) + 노력 / 눈앞의 일 · 용기 · 공정 · 감정 · 지혜
126 ¶3~인용 뒤	유산 · 죽음	신뢰받는 조언자 · 팍스 로마나 · 세네카 · 마르쿠스 / 겸손과 죽음의 교훈 · 궁정 전체의 죽음 · 시간의 수레바퀴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옥타비아누스 곁의 두 스토아	아테노도로스 — 주로 교육과 도덕적 성품(추측)	아리우스 — 정치 문제까지 직접 가르침
아리우스에 대해 아는 것	그 사람 자체(조금 적게 앎)	그의 믿음과 스토아의 핵심 가르침(훨씬 많이 앎)
알렉산드리아 입성	정복자에 대한 두려움 — 최악을 걱정한 주민	토박이 아리우스와 손잡음 → 해칠 뜻이 없다는 신호
아리우스라는 이름	'전쟁을 좋아하는 쌍둥이' · 마키아벨리적 조언	평화의 상징으로 쓰임(아이러니)
카이사리온 제거	덕을 가르치는 스토아의 원칙 · 사랑한다던 카이사르의 아들	또 한 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이집트 총독 자리	공식 직함 — 가장 큰 속주 하나를 다스림	황제 곁의 비공식 역할 — 훨씬 큰 영향력(저자의 짐작)
리비아 위로 편지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보이려는 자부심 · 체념	굳게 버팀 · 떠난 이를 다정히 추억 · 산 이들을 생각
사람의 두 종류	가치 없는 어리석은 자 — 앎이 없고 근면하지 않음	가치 있는 지혜로운 자 — 앎으로 덕을 추구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덕은 어디서 오는가	타고난 능력 · 타고난 재능(aphormai)만으로	갈고닦는 능동적 실천 · 고된 노력이 더해져야
권력을 쥔 지도자	왕좌를 쉬는 데 쓰는 사람 · 권력에 타락	모두를 위해 수고한 아우구스투스 · 타락의 증거가 없는 스승들
27 BC 이후 두 스승의 몫	옛 공화정으로 되돌리기(더는 불가능)	마주한 상황에서 최선 · 제자를 가장 나은 사람으로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rius Didymus	B. **70 BC** · Origin **Alexandria** · D. **10 AD** · 발음 AIR-ee-us DID-im-us · 이름의 뜻 = 글자 그대로 **"Warlike Twin"**(전쟁을 좋아하는 쌍둥이) · 저자가 붙인 이름 = the Kingmaker II
44 BC	아리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삶에 들어온 **무렵**(sometime around) · 어린 아들들을 데려옴
Suetonius	아들들이 옥타비아누스의 "tent-companions"(막사 동료)가 되어 여러 학문에 밝게 했다고 전함 → 이 관계로 그리스어를 읽고 즐기게 됨
constant companion	그의 말을 빌리면 황제의 '늘 곁에 있는 동반자' —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되는 것뿐 아니라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앎
30 BC	**서른세 살** 옥타비아누스의 알렉산드리아 입성 · 아리우스와 문자 그대로 손을 잡고 /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애로 도시가 내전 한가운데로
그리스어 연설	전하는 바(We are told) · 아리우스의 도움은 **거의 틀림없이**(추측) · 살려 둔 이유 셋 = 크고 아름다움 / 위대한 인물이 세우고 이름을 붙임 / 내 친구에 대한 호의
Philostratus	자신이 적 명단에 있다고 **믿은** 철학자 · "현자는 현자를 구할 것" · 사면 = **주로** 스승을 성가심에서 구하려고(플루타르코스)
Athenodorus vs Arius	아테노도로스 = 주로 교육과 도덕적 성품에 마음을 쓴 **듯함** / 아리우스 = 정치 문제까지 직접 가르침(15장 연결)
Caesarion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어린 아들 · "카이사르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플루타르코스) · 안토니우스의 장례와 클레오파트라의 음독 **뒤**에 제거
Caesarium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지은 신전 → 완공 뒤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짐
더러운 일의 명분	카토 · 키케로 · 포르키아를 떠올림 → 또 한 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용납할 수 없음(로마도 마찬가지)
아우구스투스의 제국	이전 어느 시기보다 많은 영토 · 인구 **약 4,500만** · 이름뿐인 견제 · 그 뒤에 자문단으로 두 스토아
이집트 총독	제안받았으나 **거절** — 비공식 역할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것은 저자의 짐작(one suspects) · 멀리서 알렉산드리아를 도움
Panaetius / Scipio	친구 스키피오를 통해 로도스를 도운 파나이티오스처럼 아리우스도 멀리서 알렉산드리아를 도움(**플루타르코스**의 비유 · 8장 연결)
Themistius	원서 표기 '역사가이자 정치가' · 아우구스투스가 아리우스를 **마르쿠스 아그리파**(유력한 최측근 부관)만큼 여겼다고 전함 · 경기장의 흙먼지
Livia / Drusus	황후 리비아 · 아들 드루수스를 잃음 · 위로 편지(consolation) — 수백만 로마인의 위로와 기도보다 마음을 움직였다(리비아의 말)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네 주덕	지혜(phronesis) · 절제(sophrosune) · 정의(dikaiosune) · 용기(andreia) — 남은 저술의 중심 ·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은 것
Marcus Aurelius	아리우스의 유산을 잘 앎 · "정의, 정직, 절제, 용기"(원서 인용 — 지혜 대신 정직) / 아우구스투스 궁정의 죽음을 요약
덕 = 앎	지혜 =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둘 다 아닌 것(kathekonta) / 절제 = 고를 것 · 피할 것 / 정의 = 몫을 나누어 줌 / 용기 = 두려운 것과 아닌 것
philoponia	근면 · 용기에 속함 · 아리우스가 가장 아낀 덕목 가운데 하나, 몸소 보여 줌 · 옥타비아누스 = 그 본보기
Zeno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치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범주의 출처라고 아리우스가 **주장** · 정치적 편의에 대해서는 말한 적 없음
Nero / 벽돌과 대리석	아우구스투스 = 완벽과 거리가 멀지만 네로는 아님 · 말년의 말: 벽돌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제국을 남김(저자 = 틀리지 않았다)
Seneca / 27 BC	세네카 = 훗날 권력에 가까워 타락했다는 비난을 받음(두 스승은 그런 증거 없음) / 27 BC =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해
aphormai / Pax Romana	타고난 재능(**파나이티오스**처럼) + 고된 노력 / 두 스승이 빚는 데 힘을 보탠 팍스 로마나 · 궁정 목록의 Maecena(원서 표기)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Arius Didymus the Kingmaker II」 (원서 PDF 122~126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6-1 또 한 명의 스토아, 손을 잡고 들어간 알렉산드리아 122쪽 ¶1~¶4

원문 위치 원서 122쪽 ¶1~¶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more than one great Stoic in Octavian's life	요지 — 15장 아테노도로스에 이은 두 번째 스토아
▲	¶1 둘째 문장	though we know a bit less about him, we know much more about	양보 though + 비교 대조(less ↔ much more)
★	¶1 둘째 문장	through his writings, the central teachings of the Stoics	내용 일치 — 저술로 스토아의 핵심을 앎
★	¶2 첫 문장	sometime around the year 44 BC	숫자 — 서답형 후보(무렵 = 단정 아님)
◆	¶2 둘째 문장	Octavian's "tent-companions"	밑줄 의미: 늘 함께 지내며 배우는 동무
★	¶2 둘째 문장	according to Suetonius	출처 — 서답형 · 내용 일치 후보
▲	¶2 둘째 문장	keeping the boy "well-versed in various forms of learning"	분사구문 + keep + O + 형용사 보어
▲	¶2 셋째 문장	it was through this close relationship that	It was ~ that 강조구문
▲	¶3 첫 문장	However Arius came into Octavian's circle, once in it	however + S + V(양보) / once 뒤 생략
◆	¶3 둘째 문장	the emperor's "constant companion"	밑줄 의미: 마음속까지 아는 최측근
▲	¶3 둘째 문장	knew not only what all men were allowed to know, but	not only A but B + what절
★	¶4 첫 문장	the thirty-three-year-old Octavian … in 30 BC	숫자 — 서답형 후보
◆	¶4 첫 문장	walking literally hand in hand	밑줄 의미: 공개적으로 보여 준 친밀함
▲	¶4 둘째 문장	having been brought into the middle of it through	완료 수동 분사구 삽입 / it = 내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셋째 문장	not only because it was sincere, but also because by aligning himself with	not only because A but also because B / by -ing
◆	¶4 일곱째 문장	as a favor to my friend here	밑줄 의미 1순위: 아리우스의 영향력 · 주민을 안심시킴

내용

옥타비아누스의 삶에는 위대한 스토아가 한 사람 더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리우스 디디무스다. 그에 관해 아는 것은 조금 적지만,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의 저술을 통해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는 훨씬 많이 알려져 있다. 아리우스는 기원전 44년 무렵 옥타비아누스의 삶에 들어왔고, 어린 아들들을 함께 데려왔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그 아들들은 곧 옥타비아누스의 '막사 동료'가 되어 소년이 '여러 학문에 두루 밝도록' 도왔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리스어를 읽고 그 진가를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였다. 아리우스가 어떻게 옥타비아누스의 곁에 들게 되었든, 일단 들어온 뒤에는 그 자리에 굳게 자리 잡았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는 황제의 '늘 곁에 있는 동반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되는 것뿐 아니라 황제 마음속의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알았다. 기원전 30년 서른세 살의 옥타비아누스가 승리자로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설 때, 그와 아리우스는 문자 그대로 손을 맞잡고 걸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긴 내전은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났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집착에 가까운 연애를 벌인 탓에 그 한가운데로 끌려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최악을 두려워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리우스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그 애정이 진심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알렉산드리아 토박이와 한편임을 보여 줌으로써 해칠 뜻이 없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옥타비아누스는 그리스어로 연설했는데, 그 연설은 거의 틀림없이 아리우스의 도움을 받아 쓴 것이었다. 그는 몇 가지 이유로 도시를 살려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알렉산드리아가 크고 아름답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세우고 그 이름을 붙인 도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아리우스를 가리키고는 "셋째로, 여기 있는 내 친구에게 베푸는 호의로서"라고 말했다.

어법

- **though we know a bit less about him, we know much more about what he believed and, through his writings, the central teachings of the Stoics** : though = 양보(~이긴 하지만). a bit less ↔ much more 대조(much = 비교급 강조). about의 목적어는 what he believed와 the central teachings 두 개이고, through his writings는 그 사이의 삽입구.
- **We know that Arius had come into Octavian's life sometime around the year 44 BC and that he brought his young sons with him** : know의 목적어 that절 두 개가 and로 병렬(둘째 that을 생략하지 않아 병렬이 분명함). had come = 과거완료. sometime around = ~ 무렵(정확한 해가 아님).
- **His sons quickly became Octavian's "tent-companions," according to Suetonius, keeping the boy "well-versed in various forms of learning."** : keeping ~ = 앞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는 분사구문. keep + O + 형용사 보어(well-versed in = ~에 정통한). according to = 출처(수에토니우스의 기록).
- **Indeed, it was through this close relationship that Octavian would learn to read and appreciate the Greek language** : It was ~ that 강조구문: 부사구 through this close relationship을 강조.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그 뒤에 ~하게 됨). read와 appreciate가 to 하나를 함께 씀.
- **However Arius came into Octavian's circle, once in it, he was firmly lodged** : however + S + V = 어떻게 ~하든(no matter how, 양보). once in it = once (he was) in it — 접속사 뒤 주어 + be동사 생략. it = Octavian's circle.

- **knew not only what all men were allowed to know, but all the most secret thoughts" of his heart** : not only A but B(also 생략). A = what절(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B = 명사구. be allowed to V = ~해도 되다.
- **the people of Alexandria—having been brought into the middle of it through Antony's obsessive affair with Cleopatra—feared for the worst** : 주어와 동사 사이에 완료 수동 분사구(having been p.p. = 그보다 앞서 끌려 들어감)가 끼었다. it = the long civil war. fear for the worst = 최악을 두려워하다.
- **Octavian chose to publicly display his affection for Arius not only because it was sincere, but also because by aligning himself with this native Alexandrian, he could reassure the population that he meant no harm** : not only because A but also because B. to publicly display = 부사가 to와 동사 사이에 낀 분리 부정사. by -ing = ~함으로써. reassure + O + that절 = O에게 ~라고 안심시키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riumphantly	의기양양하게, 승리자로서	victoriously	—
constant	늘 곁에 있는, 변함없는	continual	occasional
well-versed in	~에 정통한	skilled in	ignorant of
appreciate	진가를 알다	value	disregard
lodged	자리 잡은, 박힌	settled	dislodged
literally	문자 그대로	actually	figuratively
obsessive	집착하는	compulsive	—
sincere	진심의	genuine	insincere
align oneself with	~와 한편이 되다	side with	oppose
native (a.)	토박이의	indigenous	foreign
reassure	안심시키다	comfort	alarm
mean no harm	해칠 뜻이 없다	be harmless	—
spare	살려 두다	save	destroy
favor (n.)	호의, 부탁	kindness	—

내용 일치 옥타비아누스 곁의 '또 한 명의' 스토아 · 그에 관해서는 조금 덜 알지만 그의 믿음과 스토아의 핵심 가르침은 훨씬 많이 앎 · 44 BC '무렵' · 어린 아들들 · '막사 동료'의 출처 = 수에토니우스 · 이 관계로 그리스어를 읽고 즐기게 됨 · 30 BC 입성 · 옥타비아누스 서른세 살 · 연설은 그리스어(아리우스의 도움은 '거의 틀림없이' — 추측) · 살려 둔 이유 셋 = 크고 아름다움 / 위대한 인물이 세우고 이름 붙임 / 내 친구에 대한 호의. **밑줄 의미** walking literally hand in hand =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손을 잡음 → 토박이 아리우스와 한편임을 공개적으로 보임 / as a favor to my friend here = 아리우스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주민을 안심시키는 말 / 122쪽 ¶3 it = Octavian's circle.

> **한 줄 요약** 옥타비아누스의 또 다른 스토아 아리우스는 황제의 마음속까지 아는 동반자가 되었고, 기원전 30년 손을 맞잡고 들어간 알렉산드리아를 살려 두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6-2 현자를 구하는 현자, 너무 많은 카이사르 122쪽 ¶5 ~ 123쪽 ¶1

원문 위치 원서 122쪽 ¶5 ~ 12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 첫 문장	saw immediately how much sway Arius had	간접의문문 어순(how much + 명사 + S + V)
▲	¶5 둘째 문장	who believed himself to be on Octavian's enemies list	believe + 재귀대명사 + to be
▲	¶5 둘째 문장	took to following Arius around the city, begging to be spared	take to -ing(to는 전치사) / 수동형 부정사
◆	¶5 셋째 문장	"A wise man will save a wise man," … "if wise he be."	밑줄 의미: 현자라는 말에 기댄 간청 / 보어 도치
★	¶5 넷째 문장	mostly to save his teacher from the annoyance	내용 일치 — 사면의 이유(플루타르코스)
▲	¶6 첫 문장	To be used as a symbol of peace is somewhat ironic given	수동형 to부정사 주어 + given(~을 고려하면)
★	¶6 첫 문장	translates literally as "Warlike Twin"	서답형 후보 — 이름의 뜻
◆	¶6 첫 문장	the Machiavellian—though pragmatic—advice	밑줄 의미: 냉혹하지만 실용적인 조언
▲	¶6 둘째 문장	Whereas Athenodorus seemed to have mainly concerned himself with	whereas 대조 + seem to have p.p.
★	¶6 둘째 문장	Arius instructed him directly on political matters too	요지 · 15장 연결 — 통합 사고 후보
◆	123쪽 첫 줄	"it's not good to have too many Caesars"	밑줄 의미 1순위: 경쟁할 후계자를 없애라
▲	123쪽 첫 줄 둘째 문장	would wait until … had buried … and until she had poisoned herself to act on	until 두 개 + 과거완료
▲	123쪽 첫 줄 셋째 문장	not willing to risk …, even if it meant killing the son of Caesar, whom	분사구문(being 생략) / even if / 계속적 whom
★	123쪽 첫 줄 넷째 문장	it would be dedicated to Augustus instead, his son's murderer	내용 일치 — 카이사리움 신전
◆	123쪽 ¶1 첫 문장	It was dirty business	지칭: it = 카이사리온 제거
▲	123쪽 ¶1 셋째 문장	Nor could Rome.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내용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아리우스가 새 정복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곧바로 알아보았다. 자신이 옥타비아누스의 적 명단에 올라 있다고 믿은 철학자 필로스트라토스는 도시 곳곳에서 아리우스를 따라다니며 살려 달라고 빌었다. "현자는 현자를 구할 것이오. 그가 정녕 현자라면."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사면했는데, 주로 스승을 그 성가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는 것이었다. 아리우스가 평화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 조금 아이러니하다. 아리우스 디디무스는 글자 그대로 '전쟁을 좋아하는 쌍둥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가 젊은 제자에게 건네게 될 조언, 실용적이기는 하지만 마키아벨리적인 그 조언을 생각하면 더욱 어둡다. 아테노도로스는 주로 옥타비아누스의 교육과 도덕적 성품에 마음을 쓴 듯하지만, 아리우스는 정치 문제까지 직접 가르쳤다. 아리우스가 보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급한 일은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쓸어 내는 것이었다. 플루타르코스는 아리우스가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의 아들인 어린 카이사리온을 죽이라고 옥타비아누스에게 권하며 "카이사르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옥타비아누스는 한때 자기 동맹이자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를 클레오파트라가 묻고 스스로 독을 마실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그 조언을 따랐다. 그러고는 경쟁할 후계자가 하나라도 남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해 온 카이사르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되더라도 카이사리온을 없앴다. 얼마 뒤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지은 카이사리움 신전이 완공되었지만, 그 신전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졌다. 카이사르의 아들을 죽인 자, 그리고 곧 로마의 첫 황제가 될 사람에게. 더러운 일이었지만 스토아 조언자 아리우스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카토와 키케로와 포르키아를 떠올리면 그는 또 한 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용납할 수 없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다.

어법

- **Alexandrians saw immediately how much sway Arius had with their new conqueror** : saw의 목적어 = 간접의문문 how much sway + S + V(평서문 어순). 변형 → how much sway did Arius have는 오답. sway = 영향력.
- **A philosopher named Philostratus who believed himself to be on Octavian's enemies list took to following Arius around the city, begging to be spared** : named = 과거분사 후치 수식. believe oneself to be = 자신이 ~라고 믿다. 긴 주어(A philosopher ~ list) 뒤 동사 took. take to -ing = ~하기 시작하다(to는 전치사). begging = 동시 동작 분사구문, to be spared = 수동형 부정사.
- **"A wise man will save a wise man," he pleaded, "if wise he be."** : if wise he be = if he be wise에서 보어 wise를 앞으로 낸 도치. 조건절의 원형 be = 옛 문체의 가정법 현재. he pleaded = 인용 사이의 삽입.
- **To be used as a symbol of peace is somewhat ironic given Arius's name ... and darker still given the Machiavellian—though pragmatic—advice that Arius would give his young charge** : 수동형 to부정사 주어 → 단수 is. given = ~을 고려하면(전치사처럼 쓰임). darker still = 비교급을 강조하는 still. though pragmatic = though (it was) pragmatic의 생략. that = give의 직접목적어 자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 **Whereas Athenodorus seemed to have mainly concerned himself with Octavian's education and his moral character, Arius instructed him directly on political matters too** : whereas = 반면에(대조). seem to have p.p. = ~했던 것 같다(추측, 앞선 시점). concern oneself with = ~에 마음을 쓰다. too = 정치 문제'까지'.
- **Octavian would wait until Cleopatra had buried his former ally-cum-rival Antony and until she had poisoned herself to act on Arius's advice** : until절 두 개 병렬 + 과거완료(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마친 일). wait ~ to act on = ~을 실행하려고 기다리다. ally-cum-rival = 동맹이자 경쟁자(cum = ~ 겸). his = Octavian.
- **Then he made the lethal move to eliminate Caesarion, not willing to risk the existence of any rival heirs, even if it meant killing the son of Caesar, whom he had claimed to love** : not willing to = (being) not willing to —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 even if = ~하더라도. mean -ing = ~하는 것을 뜻하다. whom = 계속적 용법(바로 앞 Caesar를 받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 **It was dirty business, but Arius the Stoic advisor believed it needed to be done. ... Nor could Rome.** : need to be p.p. = ~될 필요가 있다(수동형 부정사). Nor + 조동사 + 주어 = ~도 또한 아니다(앞 부정문 could not countenance를 받는 도치). 변형 → Nor Rome could는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way (n.)	영향력	influence	—
conqueror	정복자	victor	—
plead	간청하다	beg	—
pardon (v.)	사면하다	spare	condemn
annoyance	성가심	irritation	—
ironic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paradoxical	—
Machiavellian	권모술수의	scheming	—
pragmatic	실용적인	practical	idealistic
charge (n.)	맡은 사람, 제자	ward, pupil	—
mop up	쓸어 내다, 소탕하다	clean up	—
lethal	치명적인	deadly	harmless
eliminate	없애다	remove	preserve
heir	후계자	successor	—
countenance (v.)	용납하다	tolerate	forbid

내용 일치 필로스트라토스 = 자신이 적 명단에 있다고 '믿은' 철학자 · 사면의 이유 = '주로' 스승을 성가심에서 구하려고(플루타르코스) · 이름의 뜻 = 전쟁을 좋아하는 쌍둥이 · 아테노도로스 = 주로 교육과 도덕적 성품(seemed — 추측) / 아리우스 = 정치 문제까지 직접 · 카이사리온 제거 권고의 출처 = 플루타르코스 · 실행 = 안토니우스의 장례와 클레오파트라의 음독 '뒤' · 카이사리움 =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짐 · 내전을 용납할 수 없었던 까닭 = 카토 · 키케로 · 포르키아를 떠올림. **지칭** 122쪽 ¶5 the man = Philostratus, his teacher = Arius / ¶6 his young charge = Octavian / 123쪽 첫 줄 him(telling him) = Octavian, his former ally-cum-rival = Octavian의 옛 동맹, his son's murderer =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을 죽인 자 / 123쪽 ¶1 it = 카이사리온 제거.

> **한 줄 요약** 평화의 상징으로 쓰인 아리우스는 정치에도 직접 조언해 카이사리온을 없애라고 권했고, 또 한 번의 내전을 막으려면 그 더러운 일도 필요하다고 믿었다.

16-3 권력의 정점, 황제 뒤의 두 스토아 123쪽 ¶2~¶4

원문 위치 원서 123쪽 ¶2~¶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첫 문장	Since the early Stoic leaders, Stoicism had been moving toward	since + 과거완료 진행
★	¶2 첫 문장	more political power than any Stoics in history	요지 · 내용 일치 — 비교급으로 최상급 뜻
★	¶2 셋째 문장	some forty-five million inhabitants	숫자 — 서답형 · 불일치 후보(some = 약)
◆	¶2 넷째 문장	only the most nominal checks and balances	밑줄 의미: 사실상 견제가 없음
▲	¶2 넷째 문장	behind him, as his board of advisors, were two Stoic philosophers	장소 부사구 도치(복수 were)
★	¶2 다섯째 문장	was offered the position of governor in Egypt but declined it	내용 일치 1순위 — 반전 후보 accepted
▲	¶2 다섯째 문장	one suspects because he had far more influence … than he would even governing	삽입 추측 / would 뒤 생략
★	¶2 여섯째 문장	the way Panaetius helped Rhodes through his friend Scipio	8장 연결 · 출처 = 플루타르코스
▲	¶3 첫 문장	had begged Athenodorus to stay another year	beg + O + to V / 15장 연결
◆	¶3 첫 문장	he was deeply reliant on both teachers	지칭: he = Augustus
★	¶3 둘째 문장	the historian and statesman Themistius … Marcus Agrippa	인물 — 서답형 후보
▲	¶3 셋째 문장	so much, he says, that he wouldn't insult or inconvenience	so ~ that 사이 삽입절
◆	¶3 셋째 문장	"into the stadium's dust"	밑줄 의미: 검투 경기장의 흙먼지 = 품위 없는 자리
★	¶4 첫 문장	a consolation … to Livia, the empress, when she lost her son Drusus	인물 — 서답형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둘째 문장	neither does a calm sea and fair wind display the art of the pilot	밑줄 의미: 순탄할 때는 솜씨가 드러나지 않음
▲	¶4 셋째 문장	scared though you may have been at the first roar of the tempest	보어 + though 양보 도치

내용

초기 스토아 지도자들 이래로 스토아 철학은 정치와 권력의 중심을 향해 움직여 왔다. 그러나 아리우스와 아테노도로스는 옥타비아누스 가까이에 있었기에 역사상 어떤 스토아보다 큰 정치 권력을 갑자기 쥐게 되었다. 아우구스투스의 치세에 제국은 그 이전 어느 시기보다 많은 영토를 더했고, 인구는 약 4,50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그 모두를 지휘했고, 그를 견제하는 장치는 이름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자문단으로서 두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다. 한때 아리우스는 이집트 총독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사양했다. 짐작건대 제국에서 가장 큰 속주 가운데 하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아우구스투스 곁의 비공식 역할에서 훨씬 큰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차라리 황제의 눈길이 닿는 곳에 머물며 멀리서 알렉산드리아를 돕는 쪽을 택했다. 플루타르코스가 짚었듯 이는 파나이티오스가 친구 스키피오를 통해 로도스를 도운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아테노도로스가 물러나려 하자 아우구스투스는 한 해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가 두 스승 모두에게 깊이 기댔던 것은 분명하다. 원서가 역사가이자 정치가라고 소개한 테미스티오스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는 아리우스를 자신의 유력한 최측근 부관 마르쿠스 아그리파만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테미스티오스의 말로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리우스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검투 경기를 보게 하려고 이 존경받는 철학자를 '경기장의 흙먼지 속으로' 끌고 가 모욕하거나 번거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했다. 아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가족과도 가까웠다. 황후 리비아가 아들 드루수스를 잃었을 때 그는 위로의 편지를 썼고 이 편지로 이름이 났다. 리비아는 그 편지가 수백만 로마인의 위로와 기도보다 더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다. "부디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보이는 데서 비뚤어진 자부심을 느끼지 마십시오. 순조로운 물결을 타고 삶이 쉽게 흘러가는 번영의 때에 용감하게 처신하는 것은 대단한 공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와 순풍은 키잡이의 솜씨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그의 용기를 증명하려면 궂은 날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처럼 굴복하지 말고 굳게 버티며, 위에서 떨어지는 어떤 짐이든 견디십시오. 폭풍의 첫 굉음에 겁을 먹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체념만큼 운명의 여신을 크게 탓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함께 잃은 젊은이를 다정하게 추억하고 아직 살아 있는 자녀와 손주들을 생각하자고 아리우스는 말했다.

어법

- **Since the early Stoic leaders, Stoicism had been moving toward politics and the centers of power, but through their proximity to Octavian, Arius and Athenodorus suddenly wielded more political power than any Stoics in history** : since + 시점 + 과거완료 진행(그때부터 계속 움직여 오던 중). 비교급 + than any ~ = 최상급 뜻. through their proximity to = ~ 가까이에 있었기에.
- **Under the reign of Augustus, the empire added more territory than in any preceding period** : 비교 대상이 전치사구(under the reign ↔ in any preceding period)라서 than 뒤에도 in을 쓴다.
- **behind him, as his board of advisors, were two Stoic philosophers** : 장소 부사구 behind him을 문두로 낸 도치 → 동사 were + 주어 two Stoic philosophers(복수). 변형 → was는 오답. as his board of advisors = 삽입(자격).
- **Arius was offered the position of governor in Egypt but declined it, one suspects because he had far more influence in his informal role with Augustus than he would even governing one of the largest provinces in the empire** : offer의 4형식 수동(be offered + 직접목적어). one suspects = 삽입(짐작건대 — 저자의 추측). far = 비교급 강조. than he would (have) even governing ~ = would 뒤 have influence 생략, governing은 조건의 뜻을 띤 분사.

- **He preferred instead to remain within sight of the emperor and help Alexandria from afar, not unlike, Plutarch notes, the way Panaetius helped Rhodes through his friend Scipio** : prefer to V. remain과 help가 to 하나를 함께 씀. not unlike = ~와 다르지 않게(이중 부정 = 비슷하게). Plutarch notes = 삽입절.
- **Augustus had begged Athenodorus to stay another year when he had attempted to resign, but it's clear that he was deeply reliant on both teachers** : beg + O + to V. 앞 he = Athenodorus, 뒤 he = Augustus(대명사가 오가는 지칭 문항 후보).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be reliant on = ~에 기대다.
- **He valued Arius so much, he says, that he wouldn't insult or inconvenience the eminent philosopher by dragging him "into the stadium's dust"** : so ~ that 사이에 삽입절 he says(he = Themistius). would not = ~하려 하지 않았다(의지). by -ing = ~함으로써. him = Arius.
- **neither does a calm sea and fair wind display the art of the pilot: some foul weather is wanted to prove his courage** : 부정어 neither를 문두로 낸 도치 → does + 주어 + 원형. a calm sea and fair wind는 한 덩어리 조건으로 보아 단수 does. is wanted = 필요하다(want = need의 옛 뜻). his = the pilo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ximity	가까움	closeness	distance
wield	(권력을) 쥐다, 휘두르다	exercise	—
surge (v.)	급증하다	soar	plunge
nominal	이름뿐인	token	substantial
decline (v.)	거절하다	turn down	accept
informal	비공식의	unofficial	formal
from afar	멀리서	at a distance	up close
resign	사임하다	step down	—
reliant on	~에 기대는	dependent on	independent of
eminent	저명한, 존경받는	distinguished	obscure
consolation	위로(의 글)	comfort	—
perverse	비뚤어진	twisted	—
prosperity	번영	good fortune	adversity
resignation	체념, 굴복	surrender	defiance

내용 일치 역사상 어떤 스토아보다 큰 정치 권력 · 영토 = 이전 어느 시기보다 많이 더함 · 인구 = '약' 4,500만 · 견제 = 이름뿐 · 이집트 총독 제안 = '거절'(이유는 저자의 짐작) · 로도스 비유(파나이티오스와 스키피오) = 플루타르코스 · 한 해 더 머물라고 간청받은 사람 = 아테노도로스(15장) · 아리우스를 아그리파만큼 여겼다는 출처 = 테미스티오스 · 위로 편지 = 황후 리비아(아들 드루수스) · 편지의 비유 = 잔잔한 바다와 순풍은 키잡이의 솜씨를 보여 주지 못함. **지칭** 123쪽 ¶2 it(declined it) = 이집트 총독 자리 / ¶3 he(attempted to resign) = Athenodorus, he(was deeply reliant) = Augustus, he says = Themistius, him(dragging him) = Arius / ¶4 his courage = the pilot의 용기.

> **한 줄 요약** 역사상 가장 큰 권력 곁에 선 아리우스는 이집트 총독 자리마저 사양하고 황제 곁에 머물렀으며, 아들을 잃은 리비아에게는 궂은 날씨가 키잡이의 용기를 증명한다며 버티라고 위로했다.

16-4 절망하지 않는 법, 네 가지 덕과 그 정의 124쪽 ¶1~¶6 + 인용

원문 위치 원서 124쪽 ¶1~¶6 + 인용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The Stoics would have never argued that life was fair or that	would have p.p.(저자의 추측) / that절 두 개
▲	¶1 둘째 문장	to despair, to tear ourselves apart in bereavement, was not only ... but	to부정사 주어 + 동격 + 단수 was / not only A but B
★	¶1 둘째 문장	a betrayal of the living who still needed us	요지 · 빈칸 1순위
◆	¶2	That's not an easy message to deliver	지칭: That = 절망은 떠난 이와 산 이를 저버린다는 메시지
◆	¶3 첫 문장	just an example or two of Arius's realpolitik	밑줄 의미: 도덕보다 현실의 이익을 따진 정치
▲	¶3 둘째 문장	manuscripts that express not just his beliefs but summaries of	명사 반복 + not just A but B
▲	¶3 셋째 문장	At the core of these writings are discussions of	장소 부사구 도치(복수 are)
★	¶3 셋째 문장	wisdom (phronesis), self-control (sophrosune), justice (dikaiosune), and bravery (andreia)	서답형 · 내용 일치 1순위
★	¶3 다섯째 문장	"justice, honesty, self-control, courage"	마르쿠스의 목록 — 지혜 대신 honesty(바꿔치기 주의)
★	¶4 첫 문장	there was in fact nothing better than those four virtues	빈칸 · 요약 후보
◆	¶4 둘째 문장	Everything that was evil lacked them	지칭: them = 네 덕
▲	¶5 첫 문장	sought to systematize ... as well as to account for	A as well as B(to부정사 병렬)
◆	¶5 둘째 문장	a kind of road map for the aspiring Stoic	밑줄 의미: 덕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는 안내서
▲	¶5 둘째 문장	whether they were an emperor trying to ... or an ambitious young person	whether A or B / 단수 they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 첫 문장	defining virtue as types of knowledge	빈칸 1순위
★	124쪽 인용 여덟째 문장	philoponia, or industriousness	서답형 — 아리우스가 가장 아낀 덕목 가운데 하나

내용

스토아는 삶이 공평하다거나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는 것, 곧 사별의 슬픔 속에서 자신을 갈가리 찢는 것은 사랑한 사람의 기억을 모욕하는 일일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산 사람들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믿었다. 아들을 막 묻은 어머니에게 전하기 쉬운 말은 아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섬세함과 품위, 그리고 그녀가 평생 고마워한 연민으로 그 말을 전해 냈다. 아리우스의 현실 정치를 보여 주는 예는 한두 가지뿐이지만, 그의 스토아 가르침에 대한 증거는 훨씬 많다. 그의 저술 사본 여러 편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그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스토아 학설의 요약이 담겨 있다. 이 저술의 중심에는 네 가지 주덕, 곧 지혜(phronesis) · 절제(sophrosune) · 정의(dikaiosune) · 용기(andreia)에 관한 논의가 있다.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아리우스의 유산을 잘 알았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네 덕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는 "정의, 정직, 절제, 용기… 이보다 나은 것을 찾거든 주저 없이 받아들이라"고 썼다. 그렇다면 이 덕들은 참으로 특별한 것임이 틀림없다. 아리우스에게는 실제로 이 네 덕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악한 것은 모두 이 덕들이 없었고, 선한 것은 모두 이 덕들을 담고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아무래도 좋은 것, 곧 상관없는 것이었다. 아리우스는 저술에서 흔히 덕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이 네 갈래 틀 아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들이 스토아 학설의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인지도 설명하려 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스토아를 꿈꾸는 사람을 위한 일종의 지도를 만들었다. 자기 정념을 다스리려는 황제든, 사업에 첫발을 내딛는 야심 찬 젊은이든 마찬가지다. 그의 정의는 간단했다. 그는 덕을 본질적으로 여러 종류의 앎으로 정의했다. 지혜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과 둘 다 아닌 일, 곧 마땅한 행위(kathekonta)에 대한 앎이며, 판단의 건전함 · 신중함 · 영리함 · 분별 · 목표의 건전함 · 재치를 품는다. 절제는 고를 만한 것과 피할 만한 것과 둘 다 아닌 것에 대한 앎이며, 질서 · 예의 · 겸손 · 자기 통제를 품는다. 정의는 사람과 상황마다 마땅한 몫을 나누어 주는 앎이며, 경건(신들에게 그 몫을 드림) · 친절 · 좋은 친교 · 공정한 거래를 품는다. 용기는 두려운 것과 두렵지 않은 것과 둘 다 아닌 것에 대한 앎이다. 여기에는 인내 · 대담함 · 큰마음 · 굳센 마음, 그리고 아리우스가 가장 아낀 덕목 가운데 하나로 그가 몸소 잘 보여 준 필로포니아, 곧 근면이 들어 있었다.

어법

- **The Stoics would have never argued that life was fair or that losing someone didn't hurt** : would have p.p. = (물었다면) ~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저자의 추측. argued의 목적어 that절 두 개가 or로 병렬. 동명사 주어 losing someone(단수 취급).
- **they believed that to despair, to tear ourselves apart in bereavement, was not only an affront to the memory of the person we loved, but a betrayal of the living who still needed us** : to부정사 주어 to despair + 그것을 풀어 쓴 동격 to tear ~ → 단수 was. not only A but (also) B. the person (whom) we lov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the living = 산 사람들(the + 형용사 = 복수 명사).
- **Although we have just an example or two of Arius's realpolitik, we have much more evidence of his Stoic teachings** : although = 양보. evidence는 불가산 명사 → much more(비교급 강조 much). 변형 → many more evidence는 오답.
- **At the core of these writings are discussions of the four cardinal virtues** : 장소 부사구 At the core of ~를 문두로 낸 도치 → 복수 주어 discussions에 맞춘 are. 변형 → is는 오답.
- **If we ever find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honesty, self-control, courage . . . if you find anything better than that, embrace it without reservations," he wrote—they must be very special indeed** : 인용

속 if절 + 명령문 embrace. must be = ~임이 틀림없다(논리적 추론). they = 네 덕. 마르쿠스의 목록은 지혜 대신 honesty(원서 인용 그대로).

- **Arius sought to systematize all the commonly held virtues under this fourfold schema, as well as to account for their relation to other parts of Stoic doctrine** : seek to V(sought = 과거). A as well as B = to systematize와 to account for 병렬. commonly held = virtues를 앞에서 꾸미는 부사 + 과거분사. account for = 설명하다.
- **whether they were an emperor trying to control their passions or an ambitious young person setting out on a career in business** : whether A or B = A이든 B이든(양보 부사절). they·their = 앞의 the aspiring Stoic을 성별 없이 받는 단수 they. trying·setting =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현재분사.
- **Contained within this virtue are things like orderliness, propriety, modesty, and self-mastery** : 과거분사 보어 Contained within this virtue를 문두로 낸 도치 → 동사 are + 주어 things(복수). 바로 뒤 Under this banner Stoics placed ~는 도치가 아니라 부사구만 앞으로 나온 평서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spair (v.)	절망하다	lose hope	hope
bereavement	사별	loss	—
affront	모욕	insult	tribute
betrayal	배신	treachery	loyalty
compassion	연민	sympathy	cruelty
realpolitik	현실 정치	power politics	idealism
manuscript	사본, 원고	text	—
doctrine	학설, 교리	teaching	—
cardinal	주요한, 근본적인	principal	minor
put on a pedestal	떠받들다	exalt	belittle
systematize	체계화하다	organize	—
aspiring	장차 ~가 되려는	would-be	—
straightforward	간단한, 명쾌한	simple	complicated
industriousness	근면	diligence	laziness

내용 일치 삶이 공평하다거나 상실이 아프지 않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을 것(추측) · 절망 = 떠난 이의 기억에 대한 모욕 + 산 사람에 대한 배신 · 현실 정치의 예 = 한두 가지 / 가르침의 증거 = 훨씬 많음 · 남은 것 = 여러 편의 사본(자신의 믿음 + 수세기 학설의 요약) · 네 주덕 = 지혜 · 절제 · 정의 · 용기 · 마르쿠스의 인용 = 정의 · 정직 · 절제 · 용기 · 나머지 = 아무래도 좋은 것 · 덕 = 여러 종류의 앎 · 필로포니아(근면) = 용기에 속함, 아리우스가 가장 아낀 덕목 가운데 하나. **밑줄 의미** a kind of road map = 황제든 젊은이든 덕에 이르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한 안내서 / realpolitik = 카이사리온 제거처럼 원칙보다 현실의 이익을 따진 정치 / 124쪽 ¶4 them = 네 덕.

> **한 줄 요약** 아리우스는 절망이 떠난 이와 산 이를 함께 저버리는 일이라며 리비아를 위로했고, 모든 덕을 지혜 · 절제 · 정의 · 용기라는 네 가지 앎 아래 정리해 스토아를 꿈꾸는 이의 지도를 만들었다.

16-5 흑과 백의 세계, 대리석의 제국 125쪽 ¶1~¶5

원문 위치 원서 125쪽 ¶1~¶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stupidity, lack of restraint, injustice, and cowardice are all the lack of	복수 주어 + 동격 all
▲	¶1 둘째 문장	another set of categories Arius attempt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전치사가 끝에 남은 관계절(목적격 생략)
★	¶1 둘째 문장	which he claimed came from Zeno	인물 — 출처는 아리우스의 주장(claimed)
★	¶1 셋째 문장	only two types of people ... wise people and fools	내용 일치 · 요약 후보
◆	¶1 다섯째 문장	It's black and white without much room for the gray	밑줄 의미: 중간을 허락하지 않는 이분법
▲	¶1 여섯째 문장	to ask Arius which of the four virtues a person falls under ... who murders young princes	간접의문문 + 떨어진 관계절
◆	¶1 아홉째 문장	another unlisted category entitled political expediency	밑줄 의미: 카이사리온 제거를 꼬집는 반어
◆	¶2	Certainly Zeno never said anything about that.	지칭: that = 정치적 편의라는 범주
▲	¶3 첫 문장	while we have the natural ability ..., it is in fact an active practice ... that makes	while 양보 + It is ~ that 강조
★	¶3 첫 문장	an active practice of cultivating and refining them	요지 · 빈칸 1순위
★	¶3 둘째 문장	"disposition of the soul in harmony with itself concerning one's whole life"	빈칸 후보
●	¶4	We can't know. ... Yes.	반전 후보: 아리우스 자신 = 알 수 없음 / 옥타비아누스 = 그렇다
▲	¶5 첫 문장	Augustus was nowhere near perfect	nowhere near = 전혀 ~ 아닌
▲	¶5 셋째 문장	He seemed to earnestly strive to be great, to be in control ..., and to live by	추측 seemed + to부정사 셋 병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 넷째 문장	inherited a Rome of brick but left the world an empire of marble	밑줄 의미 · 내용 일치 후보
▲	¶5 다섯째 문장	Buildings stand to this day that are a testament to	관계절이 동사 뒤로 떨어짐

내용

이 네 덕과 반대로 어리석음 · 무절제 · 불의 · 비겁은 모두 이 앎이 없는 상태다. 이 생각은 아리우스가 세상을 나누어 정리하려 한 또 다른 범주와도 잘 맞는데, 그는 이 범주가 제논에게서 왔다고 주장했다. 그가 쓰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곧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이다. 가치 없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덕을 추구할 때 쓰는 앎이 없다. 흑과 백만 있을 뿐 세상의 회색이 들어설 자리는 별로 없다. 그러니 아리우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언젠가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어린 왕자들을 죽이는 사람은 네 덕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정의인가, 지혜인가, 아니면 목록에 없는 '정치적 편의'라는 범주가 따로 있는가. 제논이 그런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아리우스가 말하려던 핵심은 이것이었다. 우리에게 이 덕들을 드러낼 타고난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지혜롭고 선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그 덕들을 기르고 다듬는 능동적인 실천이다. 그는 덕 있는 삶의 핵심이 '삶 전체에 걸쳐 영혼이 그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 자신은 거기에 이르렀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그와 아테노도로스는 절대 권력과 그에 따르는 온갖 타락의 압력을 떠안은 옥타비아누스를 덕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데려갔을까. 그렇다. 아우구스투스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네로는 아니었다. 기록이 보여 주는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진 사람이다. 이는 지도자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히 절대 권력을 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그는 위대해지려고, 자신을 다스리려고, 그 주덕들에 따라 살려고 진지하게 애쓴 듯하다. 말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벽돌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제국을 세상에 남겼다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오늘날까지 서 있는 건물들이 그 노고를, 나아가 그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북돋운 철학자를 증언한다.

어법

- **In contrast to these four virtues, stupidity, lack of restraint, injustice, and cowardice are all the lack of this knowledge** : in contrast to = ~와 대조적으로. 주어 넷 → 복수 are. all = 주어와 동격(모두). this knowledge = 네 덕을 이루는 앎.
- **It's an idea that matches up well with another set of categories Arius attempt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which he claimed came from Zeno** : categories (that) Arius attempt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 organize A into B의 into가 끝에 남은 목적격 관계절. which he claimed came from ~ = 관계대명사 which가 came의 주어이고 he claimed는 삽입절. 변형 → which he claimed it came은 오답.
- **There are only two types of people in this world, he wrote, wise people and fools, or the worthwhile and the worthless** : he wrote = 삽입절. the + 형용사 = ~한 사람들(복수). or = 즉, 바꿔 말하면.
- **One is tempted, for instance, to ask Arius which of the four virtues a person falls under—and whether it's the wise or the foolish—who murders young princes who might someday be rivals** : be tempted to V = ~하고 싶어지다. ask + IO(Arius) + 간접의문문 두 개(which ~ / whether ~). who murders ~는 a person을 꾸미는 관계절인데 대시 삽입 뒤로 떨어졌다. fall under = ~에 속하다.
- **while we have the natural ability to exhibit these virtues, it is in fact an active practice of cultivating and refining them that makes a person wise and good** : while = ~이긴 하지만(양보). It is ~ that 강조구문으로 주어 an active practice를 강조 → 단수 makes. make + O + 형용사 보어 둘(wise and good).

- **Did he and Athenodorus get Octavian—a man who took on absolute power and all the corruptive pressures that come along with it—a bit closer to virtue?** : get + O + 보어(closer to ~) = O를 ~에 더 가까이 데려가다. 대시 사이 = Octavian의 동격 삽입. that come = 일반적 사실이라 현재 시제. it = absolute power.
- **The sources show a man who got better over time, certainly not the rule among leaders or human beings, particularly those with absolute power** : get better = 나아지다. certainly not the rule ~ = 앞 내용 전체를 받는 동격 설명(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일). those with ~ = ~을 가진 사람들.
- **Augustus remarked that he had inherited a Rome of brick but left the world an empire of marble** : had inherited(과거완료: 물려받은 것이 먼저) ↔ left(과거). left + IO(the world) + DO(an empire of marble) = 4형식.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straint	절제	self-control	excess
cowardice	비겁	timidity	courage
category	범주	class	—
worthless	가치 없는	useless	worthwhile
be tempted to	~하고 싶어지다	be inclined to	be reluctant to
expediency	편의, 편의주의	convenience	principle
exhibit	드러내다	display	conceal
cultivate	기르다	develop	neglect
refine	다듬다	polish	—
disposition	성향, 상태	temperament	—
corruptive	타락시키는	corrupting	—
earnestly	진지하게	sincerely	halfheartedly
testament	증거, 증언	proof	—
exhort	권고하다, 북돋우다	urge	discourage

내용 일치 악덕 넷 = 어리석음 · 무절제 · 불의 · 비겁 = 앎의 결여 · 두 종류의 사람(지혜로운 자 / 어리석은 자) = 제논에게서 왔다는 것은 아리우스의 '주장' · 왕자 살해에 대한 물음 = 저자의 반어 · 사람을 지혜롭고 선하게 만드는 것 =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능동적인 실천 · 아리우스 자신이 이르렀는지 = 알 수 없음 / 옥타비아누스를 덕에 가깝게 = 그렇다 · 아우구스투스 = 완벽하지 않으나 네로는 아님 ·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짐 · 애쓴 '듯함'(seemed) · 벽돌의 로마 → 대리석의 제국(저자 = 틀리지 않았다). **밑줄 의미** black and white = 중간 지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분법 / political expediency = 정의도 지혜도 아닌, 권력의 편의를 위한 행동(카이사리온 제거를 꼬집음) / an empire of marble = 아우구스투스가 남긴 노고의 결과 · 오늘날까지 서 있는 건물.

> **한 줄 요약** 사람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가른 아리우스의 흑백 논리는 왕자 살해 앞에서 물음을 남기지만, 덕을 갈고닦는 실천으로 본 그의 가르침은 아우구스투스를 덕에 조금 더 가까이 데려갔다.

16-6 근면과 타고난 재능, 시간의 수레바퀴 125쪽 ¶6 ~ 126쪽 인용 뒤

원문 위치 원서 125쪽 ¶6 ~ 126쪽 인용 뒤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 넷째 문장	We need guidance and we need to love the process of getting better	주장 · 빈칸 1순위
▲	¶6 넷째 문장	the Stoics believed, or we will regress to	삽입절 / or = 그렇지 않으면
★	¶6 다섯째 문장	Octavian was the epitome of philoponia	서답형 후보
▲	¶6 다섯째 문장	seemed to genuinely love to toil on behalf of	추측 seemed + 분리 부정사
▲	¶7 첫 문장	who have had the royal life … thrust upon them can have that said about them	have + O + p.p. 두 번
◆	¶7 둘째 문장	Because few, then and now, put in the work.	밑줄 의미: 노력을 쏟는 사람은 드물다
▲	¶8 첫 문장	None of the worthless are industrious	none of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	¶8 둘째 문장	a disposition able to accomplish unhesitatingly what is befitting	형용사구 후치 + what절 목적어
◆	¶8 셋째 문장	using the throne for rest	밑줄 의미 1순위
▲	¶8 넷째 문장	Nor is there any evidence that his teachers were, as Seneca would later be charged, corrupted	Nor 도치 + 동격 that + 삽입 as절(18장 연결)
▲	¶9 첫 문장	Would the mos maiorum … have been preferable to	would have p.p. 의문문 / preferable to
★	¶9 넷째 문장	by 27 BC, when Octavian became Augustus	숫자 — 서답형 1순위
▲	126쪽 첫 줄 둘째 문장	All they could do was make the best of what they faced	All S could do was + 원형
★	126쪽 ¶1 첫 문장	like Panaetius before him, … implanted gifts (aphormai)	빈칸 · 요약 후보 / 8장 연결
★	126쪽 ¶3 둘째~셋째 문장	what would become Pax Romana … the philosopher king himself, Marcus Aurelius	내용 일치 후보
◆	126쪽 인용 뒤	the wheels of time kept turning	밑줄 의미: 권력도 피하지 못한 죽음

내용

그가 스승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철학 없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 아니다. 스토아는 우리에게 안내가 필요하고 나아지는 과정을 사랑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의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다고 믿었다. 아리우스가 아끼던 덕목, 필로포니아의 본보기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였다. 그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수고하기를 진심으로 좋아한 듯하다. 왕의 삶을, 또는 권력과 성공을 떠안게 된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는 드물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력을 쏟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썼다. "가치 없는 사람 가운데 근면한 이는 없다. 근면이란 마땅한 일을 수고를 들여 주저 없이 해내는 성향인데, 가치 없는 사람 가운데 수고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열심히 일했다. 그가 왕좌를 쉬는 데 썼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훗날 세네카가 그런 비난을 받게 되듯 그의 스승들이 권력에 가까이 있고 권력에 다가갈 수 있었기에 타락했다는 증거도 없다. 카토의 공화정이 지킨 조상의 관습(mos maiorum)과 자유(libertas)가 이 새로운 아우구스투스 시대보다 나았을까. 거의 틀림없이 그렇다. 황제의 권력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며,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기원전 27년에 이르러,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일은 더는 아리우스나 아테노도로스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주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은 제자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나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뿐이었다. 아리우스는 앞선 파나이티오스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덕으로 이끌 수 있는 타고난 재능(aphormai)이 심겨 있다고 썼다. 성격에 따라 맞는 윤리적 성장의 길이 다르고 출발점도 저마다 다르지만, 이 타고난 도구에 고된 노력이 더해지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눈앞의 일에 집중하고, 우리 몫이 아닌 일에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무엇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아리우스와 아테노도로스는 이를 살아 내려 했고 가르치려 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었고, 훗날 팍스 로마나가 될 것을 빚는 데 힘을 보탰다. 그들의 안내, 곧 스토아 철학이 왕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우구스투스와 그 뒤의 세네카를 빚었을 뿐 아니라 철인 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영감을 주게 된다. 그 모든 권력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마르쿠스와 우리에게 겸손과 죽음에 대한 교훈도 남긴다. 마르쿠스는 이미 먼 옛날이 된 그 시대를 이렇게 요약했다. 아우구스투스의 궁정, 그의 아내 · 딸 · 손자들 · 의붓아들들 · 누이, 아그리파, 친척, 하인, 친구, 아리우스, Maecena(원서 표기), 의사들, 제관들… 궁정 전체가 죽었다… 누군가는 마지막이어야 한다. 아테노도로스가 죽었다. 아리우스가 죽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었다… 그리고 시간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았다.

어법

- **We need guidance and we need to love the process of getting better, the Stoics believed, or we will regress to the level of everyone else** : 삽입절 the Stoics believed. 필요 · 명령의 말 뒤 or = 그렇지 않으면. regress to = ~로 퇴보하다. getting better = 전치사 of의 목적어인 동명사.
- **Few men and women who have had the royal life—or power and success—thrust upon them can have that said about them** : 주어 Few men and women + 관계절, 동사 can have. have + O + p.p. 두 번: the royal life ~ thrust upon them(떠안겨짐), that said about them(그런 말을 들음). few = 거의 없다(부정의 뜻).
- **For industriousness is a disposition able to accomplish unhesitatingly what is befitting through toil** : for = 왜냐하면(이유의 접속사). able to ~ = disposition을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accomplish의 목적어 = what is befitting(마땅한 것), 부사 unhesitatingly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끼었다.
- **None of the worthless are industrious** : none of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are(단수 is도 가능). the worthless = 가치 없는 사람들(the + 형용사).
- **Nor is there any evidence that his teachers were, as Seneca would later be charged, corrupted by their proximity and access to power** : 부정어 Nor를 문두로 낸 도치 → is there. evidence that = 동격 that 절. as Seneca would later be charged = 삽입(훗날 세네카가 그런 혐의를 받게 되듯), were ~ corrupted = 그 사이가 벌어진 수동태.

- **Imperial power is good for no one, least of all the person wielding it** : least of all = 그중에서도 가장 ~ 아닌(특히). wielding it = the person을 뒤에서 꾸미는 현재분사.
- **All they could do was make the best of what they faced—and mold their charge into the best man they could** : All S could do was (to) + 원형: to를 생략할 수 있다. make the best of = ~에서 최선을 다하다. mold A into B = A를 B로 빚다. they could (mold him) 생략.
- **We must focus on the task at hand, and waste not a moment on the tasks that are not ours** : must 하나에 focus와 waste가 병렬. waste not a moment = not을 목적어 앞에 둔 옛 문체 · 강조(= not waste a moment). ours = our task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guidance	안내, 지도	direction	—
regress	퇴보하다	revert	progress
epitome	본보기, 전형	embodiment	—
toil (v.)	수고하다	labor	idle
thrust upon	~에게 떠안기다	impose on	—
industrious	근면한	diligent	lazy
befitting	마땅한, 걸맞은	appropriate	unfitting
accuse A of B	A를 B로 비난하다	charge A with B	acquit
preferable to	~보다 나은	better than	inferior to
mold (v.)	빚어내다	shape	—
implanted	심긴, 타고난	inborn, innate	acquired
launching point	출발점	starting point	destination
humility	겸손	modesty	arrogance
mortality	언젠가 죽어야 함	transience	immortality

내용 일치 안내와 나아지는 과정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퇴보(스토아의 믿음) · 옥타비아누스 = 필로포니아의 본보기(수고하기를 좋아한 '듯함') · 노력을 쏟는 사람 = 드묾 · 왕좌를 쉬는 데 쓰지 않음 · 스승들이 권력에 타락했다는 증거 없음 / 훗날 그런 비난을 받은 사람 = 세네카 · 공화정이 더 나았는가 = '거의 틀림없이' · 27 BC =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됨 · 타고난 재능(aphormai) = 파나이티오스처럼 · 팍스 로마나 · 영향 = 아우구스투스 → 세네카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마르쿠스의 궁정 목록에 아리우스 · 아그리파. **밑줄 의미** using the throne for rest = 권력을 편히 쉬는 자리로 삼음(근면의 반대) / put in the work = 노력을 쏟음 / the wheels of time kept turning = 그 모든 권력과 영향력도 죽음과 시간의 흐름을 막지 못함 → 겸손과 죽음의 교훈.

> **한 줄 요약** 안내와 노고로 나아진 아우구스투스, 타고난 재능에 노력을 더하라는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팍스 로마나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 이어졌지만, 결국 모두 죽고 시간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았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16 ARIUS]

범위	Arius Didymus the Kingmaker II (원서 PDF 121~12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uld Augustus have become the ruler he became without what his teachers taught him? The answer, for him or anyone, is no. The Stoics held that two things are required if we hope to improve: someone to guide us, and a real love for the slow work of growing better. Without them, we sink back to the level of the crowd. Octavian seems to have sincerely enjoyed laboring for the common good, which made him a model of philoponia, the virtue Arius prized. Few people who are handed power, success, or a royal life earn such praise, because so few of them, then or now, are willing to do the work.

① Leaders should avoid depending on their teachers.
② Real growth requires both guidance and a love of hard work.
③ Success comes naturally to talented people.
④ A royal life always makes people lazy and corrupt.
⑤ Natural ability matters more than philosophy.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rius believed that all of us are born able to show the virtues, but that this ability alone does not make anyone good. What turns a person into someone wise and good is the active, ongoing work of developing and polishing those virtues. A virtuous life, in his view, meant reaching a state in which the soul stays at peace with itself across the whole span of one's life. Whether Arius himself reached that state, we cannot know. But did he and Athenodorus help Octavian—a man who held absolute power and faced all the temptations it brings—move a little closer to virtue? Yes.

① Virtue: A Practice, Not Merely a Gift
② Why Absolute Power Always Wins
③ The Secret Private Life of Arius
④ Born Wise: The Natural Virtue of Kings
⑤ How Athenodorus Failed His Student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Stoics would never have claimed that life is fair, nor would they have pretended that losing a loved one causes no pain. They did insist, however, that to sink into despair and let grief tear us apart dishonors the memory of the one who has died, and it also abandons the people still alive who depend on us. Such words are hard to say to a newly bereaved mother. Yet Arius found a way to say them with tenderness, grace, and compassion, and she was grateful to him ever after.

① Grief should be hidden at all costs.
② Losing a loved one does not truly hurt the wise.
③ Mothers suffer more from loss than anyone.
④ Giving in to despair wrongs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who need us.
⑤ Comforting the grieving is best left to families.

4. 밑줄 친 <u>as a favor to my friend here</u>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30 BC, Octavian, then thirty-three, entered Alexandria in triumph, holding Arius by the hand. His long, bloody struggle with Antony, whose affair with Cleopatra had pulled the Alexandrians into its center, left them expecting the worst. By showing warmth toward Arius, a son of their own city, Octavian could signal that he came in peace. In a Greek speech that Arius almost certainly helped write, Octavian reportedly gave three reasons for sparing the city: its size and beauty, the great man who had founded and named it, and—smiling as he pointed at his companion—<u>as a favor to my friend here</u>.

① He wanted the crowd to forget Arius.
② He showed that a native Alexandrian had his ear, so the people could feel safe.
③ He was apologizing to Arius for the war.
④ He planned to make Arius ruler of the city.
⑤ He was joking that the city deserved no mercy.

5. 밑줄 친 using the throne for res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rius held that no worthless person is industrious. Industriousness, he explained, is a settled habit of doing what is fitting through hard labor without hesitating, and worthless people always hesitate when labor is required. By this standard, Augustus clearly passed the test. He worked tirelessly, and nobody could charge him with using the throne for rest. We also find no sign that his teachers were spoiled by being so near to power and having such easy access to it—the very charge that would one day be brought against Seneca.

① treating supreme power as a chance to relax rather than to work
② giving up the throne so that he could rest
③ sleeping in the palace instead of in the camp
④ letting his teachers rule while he traveled
⑤ refusing to take any holidays at all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Augustus had once even begged Athenodorus to remain for another year when the old teacher wished to resign, and it is quite clear that ① he depended deeply on both of his teachers. Themistius, one of our sources on Arius, reports the emperor's claim that Arius was worth as much to him as Marcus Agrippa, ② his mighty chief lieutenant. ③ He treasured Arius so highly, Themistius says, that ④ he would never want to offend or bother such a distinguished thinker by hauling ⑤ him off to the dusty arena to watch the gladiator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Octavian was guided by two great Stoics, not one. The second was Arius Didymus. Less is known about the man himself, but his writings reveal a great deal about his beliefs and about the core ideas of Stoicism. Arius entered Octavian's life around 44 BC, bringing his young sons along. Suetonius reports that the boys soon became Octavian's "tent-companions," helping him become skilled in many fields of learning; this friendship is how Octavian came to read and love Greek. Once Arius had joined the inner circle, he stayed there for good, a constant companion who knew even the emperor's most private thoughts.

① 아리우스는 기원전 30년 무렵 옥타비아누스를 만났다.
② '막사 동료'라는 표현은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서 나온다.
③ 옥타비아누스는 아리우스를 만나기 전부터 그리스어를 즐겨 읽었다.
④ 아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곁에 잠시 머물다 떠났다.
⑤ 아리우스의 아들들은 옥타비아누스와 가까이 지내며 그의 배움을 도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Stoicism had been drifting toward politics and power ever since its earliest leaders, but Arius and Athenodorus, standing so close to Octavian, suddenly held more political influence than any Stoics before them. During Augustus's reign the empire grew larger than in any earlier age, and its population climbed to roughly forty-five million. Augustus ruled over all of it with only token limits on his authority, and two Stoic thinkers stood behind him as his advisors. Arius was even invited to become governor of Egypt, but he refused, perhaps because his unofficial place beside the emperor gave him greater influence. Plutarch compares this to how Panaetius aided Rhodes through his friendship with Scipio.

① 아리우스와 아테노도로스는 이전의 어떤 스토아보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지녔다.
②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제국의 인구는 약 4,500만 명에 이르렀다.
③ 아우구스투스의 권한에는 형식적인 제약만 있었다.
④ 아리우스는 이집트 총독 자리를 받아들였다.
⑤ 플루타르코스는 아리우스를 로도스를 도운 파나이티오스에 견주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Augustus was far from perfect, but he was no Nero. The record shows a man who ① improved as the years went by—hardly the usual pattern among rulers, or among people in general, ② especially those who hold unlimited power. He appears to have tried sincerely to achieve greatness, to master himself, and ③ living by the cardinal virtues. Late in life he boasted that he had received a Rome built of brick and was leaving behind an empire of marble, and he was right. Structures that still stand today ④ bear witness to his labor, and also to the philosopher who ⑤ urged him to take that road.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ould the freedom and ancestral customs of the Republic that Cato defended have served Rome better than the new age of Augustus? Almost certainly. Imperial power benefits no one, (A) [least / less] of all the one who holds it. Yet by 27 BC, the year Octavian took the name Augustus, returning to the old order was something Arius and Athenodorus could no longer control. All they could do (B) [was / were] make the most of their situation and shape their pupil into the finest man possible. Like Panaetius before him, Arius taught that each of us is born with natural gifts, or aphormai, (C) [that / what] can guide us toward virtue; joined with hard effort, they will carry us where we hope to go.

	(A)	(B)	(C)
①	less	was	that
②	least	was	that
③	least	were	what
④	less	were	that
⑤	least	was	w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For Arius, foolishness, lack of self-control, injustice, and cowardice all amount to the ① absence of the knowledge that makes up the four virtues. This view fits ② neatly with another way he divided the world, one he said he had inherited from Zeno: humanity falls into just two kinds, the wise and the fools, the worthy and the worthless. The foolish ③ lack what the wise know and use in pursuing virtue. It is a picture in black and white that leaves ④ plenty of room for the gray areas of life. One is tempted to ask Arius where he would place someone who kills young princes because they might become rivals. Under justice? Under wisdom? Or under some ⑤ unlisted heading called political convenience? Zeno, surely, never spoke of such a thing.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rius's definitions were simple: at bottom, he treated each virtue as _____. Wisdom, he explained, means understanding which acts must be done, which must not, and which are neither; it includes sound judgment, caution, shrewdness, and inventiveness. Self-control means understanding which things deserve to be chosen, which deserve to be avoided, and which are neither, and it covers orderliness, self-mastery, and modesty. Justice means understanding how to give each person and each situation its due, including piety toward the gods, kindness, and fair dealing. Bravery means understanding what is truly frightening, what is not, and what is neither. Among its parts was one of the qualities Arius loved most, one he lived out himself: philoponia, or industriousness.

① a gift granted only to rulers
② a feeling that cannot be explained
③ a habit of the body
④ a reward given by the gods
⑤ a kind of knowledg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In the same way, he wrote, a calm sea and a gentle breeze never reveal a pilot's skill; it takes foul weather to prove his courage.

Arius also stood close to the emperor's family. When the empress Livia lost her son Drusus, he wrote her a famous consolation, which she said moved her more than the prayers offered by millions of her people. (①) He begged her not to take a twisted pride in seeming the unhappiest of women. (②) There is little merit, he reminded her, in acting bravely when times are good and life flows smoothly along with the current. (③) So, like the pilot, she should not give way but stand firm and bear whatever burden fell on her, however frightened she had been when the storm first broke. (④) Nothing, he added, insults Fortune as much as giving up. (⑤) Instead, he urged, the family should cherish their memories of the lost young man and turn their thoughts to the living children and grandchildren.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he Stoic program is simple: keep your mind on the work in front of you, waste no time on tasks that belong to others, be brave and fair, master your feelings, and above all be wise. ① Arius and Athenodorus tried to live by these rules and to teach them, which won them the trust of those at the very summit of power. ② A philosopher named Philostratus, fearing he was on Octavian's list of enemies, followed Arius around Alexandria begging for mercy. ③ Their counsel helped lay the foundation of what would later be called the Pax Romana. ④ Stoicism's place beside the throne shaped Augustus and later Seneca, and it would inspire the philosopher-emperor Marcus Aurelius. ⑤ Yet for all their influence, they also left a lesson in humility, for Athenodorus, Arius, and Augustus all died, and time rolled on without them.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rius, whose name literally means "Warlike Twin," was an odd symbol of peace. Unlike Athenodorus, who seems to have cared mostly about Octavian's education and character, he also gave direct political advice.

(A) Octavian, however, did not act at once. He waited until Cleopatra had buried Antony and poisoned herself. Only then did he have Caesarion killed, unwilling to leave any rival heir alive, even a son of Caesar.

(B) Such a murder was an ugly deed, yet Arius believed it had to be done. Remembering Cato, Cicero, and Porcia, he could not accept another bloody civil war, and neither could Rome.

(C) In Arius's view, the most urgent task in Alexandria was removing every threat to the throne. Plutarch reports that he urged Octavian to do away with young Caesarion, Caesar's son by Cleopatra, warning that too many Caesars were a bad thing.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ew cases of Arius's hard-headed politics survive, but much more of his teaching does. His surviving manuscripts preserve his own views along with Stoic thinking built up over centuries. At their heart are four cardinal virtues—wisdom, self-control, justice, and bravery. For Arius, nothing surpassed them: whatever was evil lacked them, whatever was good possessed them, and all else was indifferent. He tried to arrange every commonly accepted virtue under this four-part scheme, producing a guide for anyone hoping to live as a Stoic, from an emperor to a young person starting out in business.

→ Arius placed all virtues under (A) _____ cardinal virtues and, by doing so, offered a (B) _____ that anyone who wished to become a Stoic could follow.

① four ..... road map
② two ..... warning
③ two ..... road map
④ four ..... punishment
⑤ seven ..... mystery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rius Didymus, a native of Alexandria, entered Octavian's life around 44 BC. According to Suetonius, his young sons became the boy's "tent-companions." In 30 BC, Octavian marched into Alexandria hand in hand with Arius and spared the city, partly for his friend's sake. Plutarch reports that Arius later urged him to get rid of Caesarion. When Arius was offered the governorship of Egypt, he turned it down. Themistius tells us that Augustus valued him as highly as Marcus Agrippa. Arius also comforted the empress Livia in a famous letter after her son Drusus died. In 27 BC, Octavian became Augustus.

<QUIZ>

(1) Which city was Arius's home?

Answer for (1): _____

(2) According to whom did Arius's sons become Octavian's "tent-companions"?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Octavian march into Alexandria with Arius?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Arius accepted the governorship of Egypt?

Answer for (4): _____

(5) According to Themistius, whom did Augustus value as highly as Arius?

Answer for (5): _____

(6) To whom did Arius write a famous letter of comfort?

Answer for (6): _____

(7) In what year did Octavian become Augustu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Tarsus	N. 10 AD
B. Plutarch	O. Philostratus
C. 44 BC	P. Panaetius
D. Themistius	Q. Mark Antony
E. Livia	R. 30 BC
F. True	S. 27 BC
G. Octavia	T. False
H. Cleopatra	U. Marcus Agrippa
I. Suetonius	V. Alexandria
J. Athenodorus	W. Rome
K. Rhodes	X. 70 BC
L. Drusus	Y. Seneca
M. Caesarion	Z. Scipio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에 관해서는 조금 덜 알지만,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는 훨씬 많이 안다. (양보 though / 비교급 강조 much)

02 옥타비아누스가 그리스어를 읽고 즐기게 된 것은 바로 이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였다. (It was ~ that 강조구문)

03 아리우스가 어떻게 그 곁에 들었든, 일단 들어온 뒤에는 굳게 자리 잡았다. (however + S + V / once 뒤 생략)

04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아리우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곧바로 알아보았다. (간접의문문 how much + 명사 + S + V)

05 아테노도로스는 주로 옥타비아누스의 교육과 도덕적 성품에 마음을 쓴 듯했다. (seem to have p.p. / concern oneself with)

06 그의 뒤에는 자문단으로서 두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다. (장소 부사구 도치 + 복수 동사)

07 아리우스는 이집트 총독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4형식 수동 be offered)

08 절망하는 것은 사랑한 사람의 기억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산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to부정사 주어 / not only A but B)

09 이 저술의 중심에는 네 가지 주덕에 관한 논의가 있다. (장소 부사구 도치 + 복수 동사 are)

10 사람을 지혜롭고 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덕들을 기르는 능동적인 실천이다. (It is ~ that 강조구문 + 단수 makes)

11 권력을 떠안은 사람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는 드물다. (have + O + p.p.)

12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주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All S could do was + 원형)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아리우스의 출생 · 사망 / 출신	
아리우스 디디무스라는 이름의 뜻	
옥타비아누스의 삶에 들어온 때 / 함께 데려온 사람	
아들들을 '막사 동료'라고 전한 사람 / 옥타비아누스가 익힌 언어	
알렉산드리아 입성 해 / 그때 옥타비아누스의 나이	
도시를 살려 둔 셋째 이유	
살려 달라고 빈 철학자 / 사면의 이유를 전한 사람	
아리우스가 제거를 권한 인물 / 그때 한 말	
카이사르를 위해 지어져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신전	
아우구스투스 치세의 인구	
아리우스가 거절한 자리 / 플루타르코스가 견준 두 사람	
아리우스를 아그리파만큼 여겼다고 전한 사람	
위로 편지를 받은 사람 / 그녀가 잃은 아들	
편지 속 키잡이의 비유	
네 주덕(그리스어)	

항목	답
아리우스가 가장 아낀 덕목 가운데 하나	
두 종류의 사람 / 그 출처라고 아리우스가 주장한 사람	
아우구스투스가 말년에 남겼다고 말한 것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해	
덕으로 이끄는 타고난 재능 / 앞서 같은 말을 한 사람	
두 스승이 빚는 데 힘을 보탠 시대 / 영감을 받은 철인 왕	

4-3. 통합 사고 문제 — 15장과 16장을 잇는 자리

문제

15장에서 아테노도로스는 미신을 깊이 믿던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도 이성과 용기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유령 이야기를 거의 틀림없이 들려주었고(119쪽 ¶1~¶2), 떠나면서는 화가 나면 알파벳 스물네 글자를 다 외기 전에는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 했다(120쪽 ¶1). 16장에서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어린 카이사리온을 없애라고 권했다(122쪽 ¶6 ~ 123쪽 첫 줄). 두 일을 비교하여,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아테노도로스와 달리 직접 다룬 영역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두 스승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5장 또는 16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아리우스가 직접 다룬 영역: Whereas Athenodorus seemed to have mainly concerned himself with Octavian's education and moral character, Arius instructed him directly on _____ matters too.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